

레저 & 트래블

■ 경남 산청 대원사계곡

담그는足足 무더위 ‘싸악~’



‘남한 제일의 탁족처’라 일컬어지는 산청군 삼장면 유령리 대원사계곡은 비구니 참선도량 대원사가 아름답고, 멀리 않은 곳에 내원사와 내원계곡이 있어 볼거리도 풍부하다. /정호희기자

초여름의 태양은 위대하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 풀과 나무를 무성하게 키워낸다. 저 놀라운 에너지, 그러나 강렬한 에너지만큼이나 숨막히는 열기는, 태양을 피해 달아나고픈 충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물가가 그리운 계절. 어찌하면 태양의 찬란함보다는, 쉽게 풀어오르거나 식지 않는 저 물의 한결 같음이 더 위대한 지도 모른다. 초여름 물가가 떠나고픈 이유다.

고전적이고 매력적인 피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맑은 계곡물에 발 담그기. 탁족(濯足)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매력적인 피서법이다.

‘남한 제일의 탁족처’라 일컬어지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령리 대원사계곡으로 간다. 비구니 참선도량 대원사가 아름답고, 멀리 않은 곳에 내원사와 내원계곡도 있다.

30리 계곡 ‘남한 제일의 탁족처’

평평한 바위 많아 앉기도 좋아

대원사로 들어가는 길, 아름드리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숲 그늘을 지나 만난 그림 같은 절집. 비구니 참선도량 대원사다. 하얀 담장, 정원처럼 잘 꾸며진 화단이 예사롭지 않다. 비구니 스님들의 부지런한 손길이 느껴진다.

경내로 들어서자, 아니나 다를까. 얼굴을 다 가리는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잡초를 뽑고 있는 스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절집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다고 칭찬을 하자 한 스님은 “청도 운문사만 못하다”며 겸손하게 손사래를 친다.

적당히 빗바람 단청과 검게 그을린 굴뚝에도 정갈한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대웅전, 원통보전을 지나 산왕각 쪽으로 올라가다가 장독대를 만났다. 반듯반듯하게 뒀인 장독들이 단정하게 줄지어 섰다. 카메라를 든 사람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면.

절문을 멈추고 뒤돌아 보니, 원통보전의 지붕 모양새도 특이하다. 팔각지붕 형태지만, 크기에 변화를 준 모습.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멀리 담장 너머로 대원사다층석탑이 보인다.

보물 제1112호. 자장승사가 처음 세웠는데, 임진왜란 때 파괴돼 조선 정조 8년(1784년)에 다시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비구니들의

선방인 사리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담 너머로 탐을 훔쳐볼 수밖에. 아쉽다.

사리전 안을 오가는 여승들의 모습도 보인다. 참선 도중 굳어진 다리를 풀기 위해 산책이라도 하는 걸까. 눈을 내리깔고 발을 옮기는, 걸음걸이조차도 숙연하다.

조용히 절을 나와 계곡을 따라 올라간다. 대원사계곡을 ‘남한 제일의 탁족처’로 꼽았던 유홍준 문화재청장.

그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너럭바위에 앉아 계류에 발을 담그고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먼데 하늘을 쳐다보며 인생의 긴 여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으리라”고 썼다.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려는 등산로 오른쪽에 펼쳐진 계곡은 과연 탁족처로 손색이 없다. 맑고 풍부한 물도 그렇지만, 넓고 평평한 바위가 많아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만한 곳이 도처에 널렸다. 그러나 숲길과 계곡 사이를 가로

막고 선 절조망 때문에 계곡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지리산국립공원 측은 “대원사계곡 중 10km 정도가 국립공원에 포함돼 있어 야영과 취사가 금지돼 있다”며 “발을 담그는 정도 이상의 물놀이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영을 원하는 사람은 대원사 야영장과 소막골 야영장을 이용하자.

맑고 깨끗하고 풍부한 물

전반 순천에서 왔다는 등산객 김양휘(36)씨는 “여름 산행에 계곡이 빠지면 재미가 없다”며 “특히 지리산 대원사계곡은 물이 맑고 깨끗해 보기만 해도 마음이 씻기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30여리에 이르는 대원사계곡이 푸른 그늘에 젖어있다. 느티나무, 비목, 굴참나무, 고욤나무, 서어나무 등 제각기 이름표를 달고 선 나무들. 아기 손바닥처럼 앙증맞은 이파리를 매단 단풍나무도 눈에 띈다. 가을 단풍전에 다시 찾으면 색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겠지. 단풍나무가 등산객들 등 뒤에서 파란 손을 흔든다.

〈부산일보 제공〉

/이재영기자 2young@busanilbo.com

전라도 맛 기행

확순 한천 ‘드림 현무정’ 삼겹살 구이



은은한 참숯향 입안 가득

묵은김치에 싸먹는 두부도 일품

웰빙라이프, 슬로우라이프의 꽃인 백탄. 백탄은 검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물이다. 하얀 재가루가 붙어서 백탄(참숯)이라 하는데 공결을 축출할 때 호황토 지층위에 참숯, 소금, 황토, 자갈, 왕모래를 켜켜이 깔고 다진위에 공결을 조영했다고 한다. 또 중국 마왕퇴 고분에도 참숯이 발견된다.

백탄. 즉 참숯은 나무중 ‘참’자가 들어가는 참나무, 굴참나무 마른것을 여러날 건류탄화 시켜 만들어 낸다. 백탄이 웰빙생활의 보물로 각광받는 이유는 많은 구멍 속에 살고 있는 유익한 미생물 때문. 무수한 구멍은 통풍성, 통기성이 뛰어나 그 구멍을 통해 기체, 액체가 통과할 때 유해물질이 전부 구멍속에 흡착돼 미생물들을 분해시켜 준다.

이처럼 웰빙라이프의 대명사인 ‘백탄’을 이용해 직접 고기를 구워먹는 전원 식당이었다. 화순군 한천면 동거리 721-1번지 ‘드림 현무정’이 그곳이다. 이곳은 주인 박해숙(46)씨가 남편과 함께 3만5천평부지에 백탄 가마터를 만들어 숯을 구워내고, 황토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인들에게 백탄을 이용해 돼지고기를 구워 봤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며 2년전부터 드림 현무정 식당을 운영하게 됐다. ‘현무정’이란 왕이 명당자리를

보러가다 잠시 쉬어가는 장소로 일컫는 곳이다. 식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한적하고 여유로운 전원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발강계 달구려 백탄에 1등급 삼겹살을 굽는데 가마터에서 구워낸 굵은 소금만 살살 뿌려주면 고 다진위에 공결을 조영했다고 한다. 또 중국 마왕퇴 고분에도 참숯이 발견된다. 식사전 제공되는 직접 만든 두부묵은 김치로 싸먹는 맛 또한 일품이다. 이외에 상추, 깻잎, 고추등 상차림에 등장하는 푸른 채소는 전부 직접 재배한 순수 유기농 채소다. 삼겹살을 먹으려는 역시 직접 만든 청국장에 밥 한그릇으로 부족하다. 1인분 8천원. 문의 061-374-8550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맛 : ★★★★★, 분위기 : ★★★★★, 가격만족 : ★★★★★, < ★ 6개 만점 >. Map showing location near Hyeonmujeong and Hyeonsoom.

조립식 건축 전문, 화물자동차 전문매매, 박기수 011-602-7494

해동철학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비한 주역·역학,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차량분양(지입차주)모심, 25톤 냉동탑, 5톤 냉동탑, 동양로지스(주) 062-521-9300

(주)홈컨부동산 리서치, T.(062)385-9994, 233-2222 상무지구 주력공사였, 一生 최대의 쇼핑! 당사는 名品을 취급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법원앞에서 지산주소속으로 70m) ☎ 062-236-3400

한길부동산중개, 한길부동산중개, 수익성 건물매매, 수익률 최고! 미래가치 최고!, 상가주택, 상무지구 대118동